

## -영적 전쟁

2015.7.18 옥주원

우리의 본성 - 어떤 싸움이든 편을 가르고 한쪽을 성원하도록 되어 있음  
우리를 의의 싸움에 참여시키기로 작정하신 하나님.

영적 전쟁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기로 했을 때 자동으로 돌입하게 된 것.

### 영적 전쟁에 대한 **극단적인 태도**

- 1. 지나친 강조** : 화를 잘 내면 귀신 때문, 자동차 시동이 걸리지 않으면 귀신 때문, 등등  
- 모든 잘못된 선택과 이기적인 행위들이 마귀와 그 무리의 짓이라고 단정 짓는다.

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승리하는 삶을 살도록 되어있으므로 우리의 모든 행동이 귀신의 역사라고 말해선 안 된다.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.

### 영적 교만:

"나에게 해답이 있다. 오직 나만이 열쇠를 가지고 있다." 라고 주장하며 독단적인 사람이 되는 것.

우리는 모두 권력과 지배, 인정에 대한 욕구로 치우치기 쉬운 사람들이기 때문에 영적 교만에 대해 자유롭기는 어렵다.

### 초자연적 현상들

초자연적인 역사를 보려는 소원 때문에 균형을 잃게 되는 경우 - 사탄도 우리에게 구경거리를 보여줄 수 있어.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이기적인 관심을 만족시키는 데는 관심이 없으시다.

### 하나님의 우선순위:

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잃어버린 자들과 화해하며(선교), 그 분의 몸인 교회를 하나 되게 하고 성숙하게 하여 온전함에 이르게 하시는 것.

마가복음 16장 15절 -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라.

그 다음 절인 17~18절에서 병든자를 고치고 마귀를 내쫓으리라는 말씀.

- **복음을 전하는 것이 우선.**

### 2. 불충분한 강조 : 마귀를 쫓는 행위에 대한 **무관심, 혹은 혐오.**

사탄을 인정하기만 해도 마귀의 역사가 일어난다고 생각 - 마귀의 공격을 받기 쉽다.

우리의 승리는 확고하지만, 적군(사탄)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 것을 두려워 할 필요는 없다. 적군을 너무 많이 알아서 고통당하는 군대는 없기에 우리 확고한 승리 가운데 평안을 누리는 한편 마귀의 꾀술을 알 필요가 있다.

우리가 그들의 활동에 빛을 비추어 마귀의 활동에 제약을 주어야 해..

“진리를 알지니 **진리**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.” (요한복음 8:32)

## 진리 - 성경

성경의 모든 말씀이 우리의 유익을 위한 것. 그 하나님의 말씀에 **어둠의 세력에 대한 진실**에 대해서 많이 나옴, 성경이 우리에게 마귀에 대해 가르치는 말씀을 우리가 안다고 해서 우리가 위험에 빠지는 일은 존재하지 않는다.

성경 - 300번이 넘게 **“두려워 말라!”** 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다.

시편 23편 4절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 지라도 해(evil)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하심이라.

두려움 -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모를 때, 대적에 대한 지식이 없을 때 생긴다.

## ※ 두 극단적인 사고방식을 **피하기** 위해선

### -하나님께 묻자!

마귀의 역사라고 단정짓지 말고, 마귀의 소행이라고 인정하는 것 또한 거부하지 말아라.

하나님께서 알려 주시도록 구하라.

-하나님을 더 알아야 하고, 마귀에 대해서 알아야 하는 이유.

에베소서 6장 10절

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.

**영적 전쟁의 중요한 원리 - 주 안에서 강건해지는 것.**

## 강건하여지는 것

### 1. 앉기

① **다스린다**(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 노릇 하리로다. 롬 5:17)

② **완결된 작업**(너희도 그(Christ)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그는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시라 골 2:10)

③ **편히 쉬는 자리**에 있다.

### 2. 걷기

#### **행하는 법**

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니라(엡 2:9)

하지만

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라.(엡 4:1)

옛 사람을 벗어 버리고 (엡 4:22)

의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(엡 4:24)

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(엡 4:26)

### 그리스도인의 삶

- 용서와 구원의 선물을 받기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다.  
그리스도께서 이루어야 하는 일 - 다 이루셨다.  
우리는 단지 그것을 받아들이거나 거부할 수 있을 뿐.  
우리의 노력으로 의롭다고 인정되거나 용납될 수 없고, 우린 단지 그분과 함께 **앉을** 뿐
- 일단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의 지위를 받아들이면 그리스도께서 놓으신 기초에 어울리도록 행해야 한다. 그분을 섬기기 위해 우리의 능력으로 할 수 있는 모든 일, 곧 순종 가운데 행하며, 빛 가운데 행하고, 성령 가운데 **행하는 것**.  
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앉아 있다 해도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지위에 합당하게 행하고 처신해야 한다. 우리는 **걸어야** 한다.

### 3. 서기

- 대적들 앞에 **맞서야** 한다.  
옛 사람을 벗고 새 사람을 입는 것.  
- 책임이 따르는 행동

새 사람을 입는 것 - 이를 닦고 때마다 자동차 오일을 가는 것 같은 일상적인 책임이며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이루신 모든 일에 대한 마땅한 응답.

구원은 하나님의 값없는 선물이나, 이 선물을 받았으면 하나님 앞에서 깨끗한 양심을 지켜야 한다.

“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~~~~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(그가)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.”(요1 3:21-22)

**전적인 쉼 가운데 앉아 구원을 확신하고, 부르심에 합당하게 걸음으로서 행함으로서 대적 마귀 앞에 맞설 준비를 끝낼 수 있다.**

이렇게 영적 전쟁 합시다.